

코로나 19 에 따른 조치(19 차)

+주의 평화

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. 성스러운 부활절을 향한 발걸음을 함께 걸어 나갑시다.

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제 8 파는 겨우 진정되기 시작했고, 정부와 행정부의 지시도 점차 완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에 맞춰 교회 활동도 가능한 한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가기를 바라며, 아래와 같은 조치를 발표합니다. 아래의 조치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각 현장에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곳의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 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각 교회 주일미사에 대하여

기본 사항

소독 : 희망자가 소독할 수 있도록 입구 부근에 소독제를 두는 것은 계속 합니다.

성체를 수여하는 사제나 봉사자가 수여 전에, 혹은 신자가 영성체 전에 소독을 하지만 미사 종료 후 좌석 소독 등을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.

마스크 착용 : 자율입니다. 어느 정도 환기가 가능하고 정원 이내의 인원수로 앉을 수 있는 환경인 경우 기도를 외우는 등 통상적인 대화 정도의 성량이면 마스크 착용은 자율. 신자 전원이 성가를 부를 경우에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. 주례 사제나 사회자, 낭독자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.

성당 입구에 성수를 두어도 됩니다. 이제부터 모든 의무 축일과 주일로 정해진 미사에 참여할 의무를 지킵니다. 단, 지금까지도 그랬듯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사에 갈 수 없는 경우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.

미사 이외의 성사(세례, 견진, 고해, 병자성사)나 혼인, 통야, 장례에서는 상기 1 에 준하여 판단해 주십시오. 미사 이외의 교회에서의 모임(집회, 스터디, 바자회, 음악회 등)에 대해서는 상기 1 에 준하여 주십시오.음식을 수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소교구 이외의 수도원이나 시설에서의 미사, 또 미사 이외의 모임에서는 상기 1 에 따라 각각의 책임자가 판단해 주십시오.

직업상이나 가정 사정, 건강 상황이나 체질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사람도 착용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. 감염 예방에 유의하는 것을 원인으로 하는 비판이나 차별이 없도록 부디 개개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기도와 절제와 애덕의 업에 힘쓰며 사순절을 보내고 기쁨 속에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갑시다.